

No.73

타오름 달

노들  
마라톤

노들장애인야학

Nodl Popular School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서울시 광진구 구의2동 16-3 정립회관 교육관 3층 • 연락처 02)446-9101(늦은 6시~10시)  
발행인 박경석 • 편집인 안소진 •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nodl.or.kr> • E-mail [nodl@paran.com](mailto:nodl@paran.com)

## 2007년, 반통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II (학생편)



비록 비루한 우리의 삶일지라도, 살아 움직이는 지금 이순간이, 소중한 그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이 야 기 구 성

### [노들바람]

04 노들바람을 여는 창

### [우리 안의 이야기\_노들]

05 우리반

10 청솔반

13 불수레반

20 한소리반

### [우리 안의 이야기\_행사]

23 검정고시 <2007 검정고시 증언대회>

### [문화산책]

32 '꿈이와 오피스텔이 아저씨'를 읽고

### [함께하기]

34 특별광고\_장애운동 활동가,  
66인에게 무슨 일이?? [웰컴투호사벌]

35 2007년 8월 후원자 명단

노들바람의 '노들'은 노란들반의 준말입니다. 농부의 노동이 녹아난 들판에 넘실대는 결실들을 뜻하는 말로 노들인 모두 대지를 일구는 농부라 생각합니다. 시퍼런 '경쟁'의 도구로 차별과 억압의 들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연대'로 '인간 존엄성과 평등'이 넘쳐나는 노란들판을, 그 대안적 세계를 꿈꾸는 농부들 말입니다.

#### 제 73호 2007·8

야학현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16-3 정립회관내 교육관 3층 (143-200)  
해회동사무실 서울특별시 중로구 명륜동 1가 29-4번지 대보빌라 8차 노들장애인야학교  
전화 | 야학 (02)446-9101 사무실 (02)766-9101 전송 (02)2179-9108  
홈페이지 <http://www.podi.or.kr> 전자우편 [nodi@paran.com](mailto:nodi@paran.com)  
발행인 박경석 편집인 김명학 노유리 배덕민 안소진 이진호 정상욱  
편집디자인 디자인샘(2273-1571)

\* 「노들바람」은 디자인샘에서 디자인을 기부해 만들어진 책입니다.

〈 〈 〈 편집장 소진

# 노들은, 14주년 개고기념제와 함께 진행한 후원하루주점을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노들야학 힘주기에 함께 해 주신 덕택입니다. 한 숨을 돌리고^^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과 정성에 기운받아 또다시, 힘차게 걸어나가겠습니다.

산넘어 산, 고비지나 고비,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립회관에서는 3차에 걸쳐서 퇴거에 대한 확인 공문을 보내왔고, 교육부, 교육청은 법적근거가 없기에 공간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체 장애인의 45.2%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 약 90만명의 장애성인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전국을 통틀어 약 14개의 장애인 야학 400명 남짓을 제외하면,

여전히 수 많은 장애성인은, 노들을 처음 시작했던 그와 그녀가 그랬듯, 집구석에서. 시골에서. 어제와 같은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가슴 졸이며, 숨 막히게 살아내겠지요.

노들은, 공간을 만들 겁니다. 누구처럼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좋은 시설을 갖춘 공간,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한글을 읽고 쓰기 위해, 셈을 가누기 위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인간'의 가치와 권리를 알고 몸소 실천하기 위해, 작은 교육공간을 마련할 겁니다. 몇 층으로 쌓은 번듯한 학교가 아니라,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고, 장애성인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고 싶다'라는 소박한 소망이, 장애성인 대중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길을 만들어 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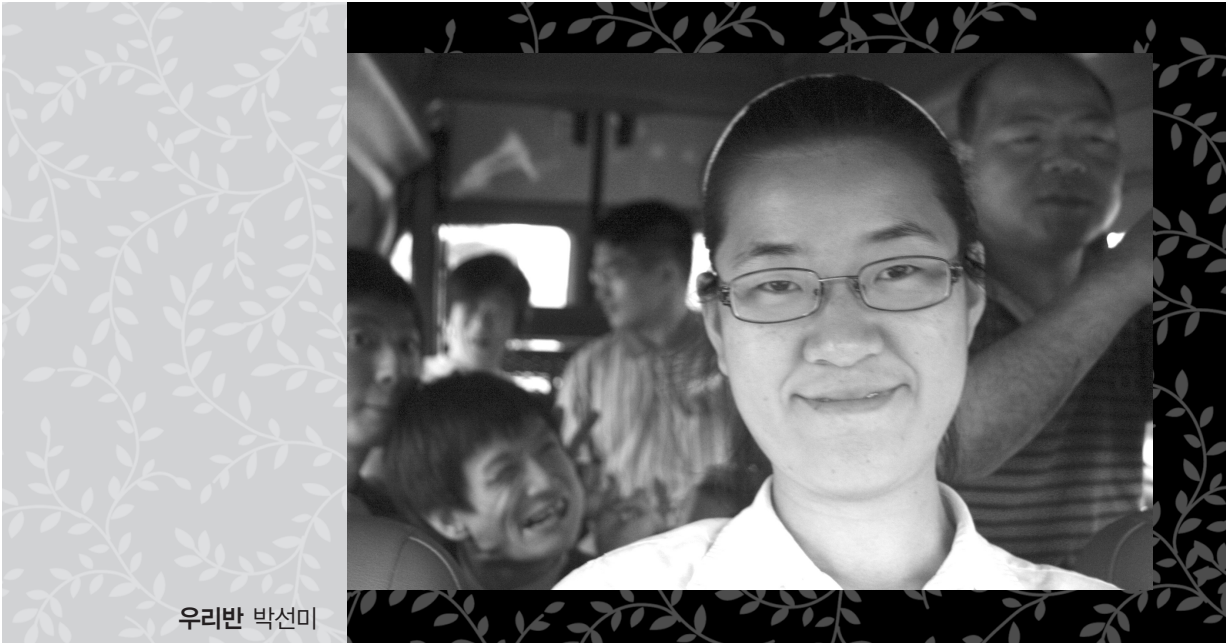
# 곧,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는 그간의 활동 보조제도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사회복지사업법개정등의 치열한 투쟁과정에서 받은 벌금마련을 위한 호프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총 66인의 활동가에게 가해진 1억 2천여만원의 벌금에, 우리, 이대로 지칠 순 없겠지요? 고작, 벌금으로 투쟁의 걸음을 묶을 순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이 없어서'라는 이유로 정부는, 누군가 배척당하고 멸시받아도, 더 이상 살아갈 수조차 없어 지하철 선로에 몸을 던져도, 한겨울 보일러가 얼어 차가운 방바닥에서 살고싶어 발버둥쳐도 그 누구도 듣지 못한 아니 들을 수 없었던 이러한 잔인한 현실을 외면하고서는 그 정부는,

일년의 365일을 투쟁하고, 선전하고, 점거하고, 노숙하고, 단식마저 불사하여 활동가들의 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던져 눈물과 땀으로 일구어낸 '최소한'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들을, 성과는 쏘옥 빼가고 벌금만 뉘를 던져줍니다. 우리, 이런 '하나마나'한 정부에 지지말고 가진 것이라고는 뉘는 심장과 벌금밖에 없는, 텅 빈 주머니의 가난한 활동가들이, 굶주린 배, 진짜로 썰기 전에, 또 한번, 힘을 보태줍니다. 10월 27,28 양일간, 노들 호프했던 거기, 그 장소, 여의도 BTB호프에서 기다리겠습니다. ^^\* [웰컴 투 호사.벌~]

# 2007년 7월 8일 일요일 [삶의 즉흥, 디퍼런스]를 보고.



우리반 박선미

저는 정신지체 장애인 박선미예요.  
저는요 예쁘고 착한 선미예요.

공연장이 안산이라서, 야학버스를 타고 간대서  
교회1부 예배를 보고 점심도 못 먹고 갔는데  
명학이오빠한테 혼났어요.  
'왜 늦게왔냐고!!'

그리고  
가다가 멀미를 해가지고 자면서 갔어요.

공연에는  
이미정언니가 나왔어요.  
언니가 너무 예뻐어요.



그 연극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언니들이 너무 예쁘고 좋았습니다.  
몸으로 행동하는 게 감동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배우들이 공연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슬펐어요. 자꾸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장애인이지만  
살아가는 게 너무 두렵고 고통스럽고 하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저희는 장애인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함께堂堂히 살아요.

공연이 끝나고 감자탕 먹으러 갔어요. 좋았어요^^\*

-----  
※ 본 글은 불수레반 이미정언니가 가열차게 준비한 퍼포먼스  
[삶의 즉흥, 디퍼런스]의 관람후기입니다.

# 나.. 김선심??



김선심. 2007년 8월 20일자로, 체험 홈 입주 만 1년차. 40여년을 집안에서 누워만 있다가, 2년 10개월간의 시설생활을 쫓내고 체험 홈 입주 성공. 그러나, 혼자 산다는 것은 너무도 힘들고 외로운 투쟁임을 아는 그녀.

## # 40여년, 집 안에서

가족이랑 함께 살았다. 내 맘대로 하는 것은 숨쉬는 것 밖에 없어. 참말로 그랬다. 내 맘대로 하는 것은 숨 쉬는 것 밖에 없고, 뭣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학교도 못가고, 놀러도 물론 못 가고, 친구도 없었지. 아냐, 친구 하나 있는데 바로 텔레비전이야. 맨날 텔레비전만 보고 누워있어. 텔레비전 보는 것이 하루 일과였어.

나는 한달에 40시간, 사람으로 삽니다.  
활동보조제도와 투쟁 중에.





### # 2년 10개월, 그 곳.

집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 집 안 식구들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 나하나 때문에 집안 식구들이 너무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엄마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날 돌볼 수가 없었어. 나는 시설을 택했지.

시설에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시설이 아니었어. 친구들과하고 대화도 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집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은 집에 있는 거나 시설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어. 하루 종일 천장만 쳐다보고 그렇게 3여년을 보냈어.

### # 알을 깨고 나온다.

내 집이 생겼고, 이 곳에서 나만의 생활이 생겼지. 반찬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하고, 물론 활동보조인을 시켜서 하는 거지만. 친구들도 생겼고, 학교도 갈 수 있고, 영화도 보러가고, 쇼핑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평범할 지도 모르겠지만 나한테 너무 소중한 생활.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를걸?? 그래도 혼자자는 밤은 참 무섭다. 다리도 아프고, 벌레도 지나가고, 모기가 물어 가려운데 긁지도 못하고, 활동보조가 없는 밤은 참 불안해서 이제 불안증이 생겨버렸으니까.

### # 그러나, 이제는

아이고 걱정이 많다. 체험홈을 나가서 혼자서 살아야 할텐데. 집도 얻어야하고, 여러 가지 가정제품도 사야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그럴려면 직장도 있어야할텐데.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 직장을 어떻게 가져? 집은 어떻게 구해? 뭐 먹고살지? 활동보조도 있어야 할텐데,, 활동보조가 계속 있을까? 나는 활동보조가 안오게 되면. 난 어떻게?? 내게는 싸우는 방법밖에 없지. 이 사회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등과의 싸움밖에 안 남았다.

나는 24시간 살아있고 싶어. 고만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활동보조가 있어서, 자립 할 수 있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제. 만날.

# “나는 000이다!!!”

청솔반 합동 글



나는 연필과 공책이다.

나는 공책과 연필이다.  
- 아름다운 시를 쓰기 때문이다.



ㅋㅋ  
노란들판을 내가  
접수한다~

나는 참새다.  
- 자주 깜짝 깜짝 놀라기 때문이다!!



나는 앵무새이다.  
 - 많이 돌아다니면서 말하고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새이다.  
 - 왜냐하면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전동휠체어이다.  
 -원하는 곳을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먹자 다 ~~~~~

나는 먹자다.  
왜냐하면, 뭐든지 잘먹기 때문이다. 고기빼고.



니가더 해!  
나는 고래다!!!!

나는 고래다.  
왜냐하면 개판오분전으로 술을 먹기 때문이다.



나는 게임이다!!!!

나는 게임이다.  
왜냐하면 게임속에서는  
여자도, 비장애인도, 전사도,  
그 무엇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가슴 두근거린다.  
객석에 사람들이 가득 찼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지게 될까?」

2007 무대제작 지원사업 선정작

# 갈등 그리고 해방

공연예술치료사가 목격한 나로부터 시작된 치밀한 탐

삶의극응 디퍼포먼스 퍼포먼스

공연예술치료사 연구회 후원, 공연예술치료사협회 후원,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공연예술연구소 후원,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공연예술연구소 공연예술연구소 후원,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공연예술연구소 후원

주최: 공연예술치료연구회 후원, 푸른대원 퍼포먼스 | 퍼포먼스 SORO

후원: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공연예술연구소 후원,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공연예술연구소 후원

제작: Space Rough

문의: 031-823-3599 | www.pet.or.kr | cafe.daum.net/performanceart

7월 8일(일)  
(토,일) 오후 4시  
당 별무리 극장

불수레반 이미정

## 1부. 갈등.

퍼포먼스 푸른 태양 가족으로 된지 4개월만에, 7월달에는 공연을 한다고 선생님께서서는 말하셨습니다. 나는 그 때 당시 남자친구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나도 공연을 하고 싶어도 말도 못하고 쉬고 있었는데 다행히 공연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었어요. 기쁘고 한편은 걱정이 많이 되었죠. 수업도 있는데.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소진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죠. 근데 수업에 빠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주말에만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나서 4월 달부터는 평일 날 야학 수업에 없을 때 하기로 하고, 평일 날에 있는 연습을 빠졌어요. 평일날도 가야 하는데,,, 이제는 수업과 연습을 갈등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사 대표님께 말씀 드렸는데, 또 수업에 빠지지 말라고 말하였다. 수업과 퍼포먼스 중 선택해라고해서 난 퍼포먼스를 선택했다. 나는 노들을 그만둬야 하나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나는 솔직히 지금은 많이 힘들다고, 공연연습을 하면서 위로를 받고 있었는데. 하여튼 나는 주말만 연습을 하게 되었다.



## 2부. 공연.

공연연습을 하는 주말 점심 때가 되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재미있었다. 옛날 과자 이야기 등 추억이 있었다. 밥 먹고 나서 다시 연습을 하면서 많이 웃고 울고 그랬다. 벌써 2달이 되었다.

드디어 공연 전날 리허설. 고잔역(공연장소 인근 역)에 리프트가 높았다. 난 무서워서 리프트 타기가 싫었다. 겁이 나서 4일 동안에 어떻게 할까? 너무 걱정되었지만 공연장 안에 들어가서 음악이 흐르자 난 절로 신이 났다.

그렇지만 연극 공연에 부담도 있다. (나는 마음이 두근두근하면서 마구 울고 싶었어요.) 첫 날 이렇게 리허설 잘 마쳤다. 내일 첫 공연 위해서 파이팅!!

드디어 첫 공연날이었다. 설레임 긴장감 기대반 했다. 공연 시간이 다가온다. 내 가슴 두근거린다. 객석에 사람들이 가득 찼다. 첫 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매우 기분이 좋았다. 둘째, 셋째날 드디어 마지막 날이었다. 벌써 마지막 날 시간이 너무나 빨랐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지게 될까? 디퍼런스 화이팅!!

※ 한 학기 내내, 종종걸음으로 야학과 공연연습을 오가던 미정언니는 무사히 “퍼포먼스” 공연을 마치고 복귀하셨습니다. 연극을 시작하면서 마음이 열렸다는 미정. 그 감동의 이야기를 컴퓨터 자판 하나씩 꺾. 꺾. 눌러가며 열심히 써주셨습니다.



# 2007년 상반기 불수레반 최진영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1월** 활동보조투쟁에 결합하여 단식, 삭발을 했습니다.

단식, 삭발을 동시에 하니, 우울증이 생겨 중간에 단식을 포기해 다른 동지들에 미안 했었고, 끝나지 같이 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2월, 3월**은 단식 끝나고 복식이 시작되어 음식을 맘대로 못 먹어서 힘들었고, 삭발의 우울증이 계속 이어져 영구 같은 머리가 보기 싫어서 나름대로 무척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3, 4월**은 1년만에 다시 야학에 복학을 하여 수업에 빠지지 않겠다던 결심과 달리 일 핑계로 자주 수업에 못 들어가서 반성합니다.

**4월, 5월**은 420투쟁이고 검정고시 시험 보고, 그결과에 한숨이 났습니다. (한숨 섞인 미소로 날려 보냈습니다) 공부를 안했으니 시험 결과는 뻔하겠죠?ㅠㅠ

**5, 6월**은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나지만, 사무실, 야학을 오가며 나름대로 바쁘게 지내는 것 같아요, 남이섬으로 모꼬지 간 게 기억이 나네요.

**7월**은 별다른 일 없이 일에 파묻혀 지내는 것 같습니다.

**8월**은 또다시 검정고시 시험을 치뤘고, 일일호프에서 술을 열라 마셨



습니다. 잠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버릇중에 하나가 취하면 자거나, 심하게 울거나..조용히 잠들었으니, 다행이죠?..

그리고 방학인데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퇴근 시간엔 나 좀 불러주기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ㅋㅋㅋ 활동가대회에서 생일을 맞아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아 열라 좋았습니다.

안그랬으면 이번 생일에 우울하게 지낼뻔 했습니다.

남은 2007년은 어떻게 보낼지 모르겠습니다.

늘 같은 날이겠죠?.. 사무실 아님, 투쟁의 현장이고 저녁엔 야학 수업에 들어가기 위해 바빠 지하철을 타고 전동휠체어를 몰고 가겠죠?..

목표를 세운다고 그 목표가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은 분명 다르기에 내가 지금 주어진 시간들 속에 해야 할 일들과 싸우며 그렇게 살래요.^^\*



# 2007년 8월 어느날 오후

불수레반 배덕민



여름방학기간이다 3주라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기간이다. 3주 그동안 수업 때문에 보고 싶은 사람들도 못 만나고 못내 아쉬웠다. 그래서 이번 방학 27일 기간 동안은 많은 사람들과 만나려고 했는데 그런지 못했다. 결정적으로 야학 교사들 단 한명이라도 개인적으로 만나 본적이 없었다. 그게 못내 아쉬웠다

서로 시간과 대화가 부족하다 왜 그럴까?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아무튼 나는 맨날 맨날 나가고, 개인적인 일도 보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영화도 보고, 그동안 시간때문에 못가본데도 가보고, 앞으로 남은 5개월 계획도 세우고 그랬다.

8월 중 여름도 아니고 그런다고 가을도 아니다 비가 오락가락 구질구질한 날씨만 계속되었다. 참 요즘 날씨 하곤.

복날도 다갔는데 불볕 더위 3년 전만 해도 폭염주의보 한파주의보 그런 말이 없었다. 그런데 요즘은 폭염주의보 한파주의보 그런 말들이 자주 듣게 된다. 하여튼 내 나름대로 방학을 재미있게 지냈었다.



언제 어디서든 렌즈를 놓치지 않는 배.

야학3년차, 학생 그리고 반장 그리고 학생총무 지금은 부총회장 30명 넘는 학생들이랑 10명 넘는 교사들이랑 한데 어울려 배우고 사랑, 그리고 차별 없는 현실 속 노들장애인가간학교가 나는 좋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좋다.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는 야학이 좋다. 그래서 나는 야학을 다니고 있다. 누가 그랬나? 야학이 무슨 복지관이라고, 아니면 놀이터냐고, 공부하지 않고 놀거면 그만두라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냐고, 그런 말이 나왔을 때가 있다. 하지만 야학은 야학이다. 정규 과정에 학교가 아니다. 야학이 좋고 사람이 좋고 그래서 다니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

야학은 누구에 것도 아니다. 노들 야학은 학생들에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주인이고 학생들 한 명 한 명 각자에 공간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2, 3년 전만해도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에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조차 다른 반 신입생 이름도 나이도 모른다. 자기반만 챙기기가 바쁘다. 결국 대화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 날짜를 정해서 학생들하고 교사들과 같이 대화 형식으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각반 상관없이, 그리고 또 서로 허물없이 학생편도 없고 교사편도 없이 만났으면 한다. 그럼 상대방이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상대방 사람에 깊은 속마음을 알 수가 있다. 현실의 나, 미래의 나. 논리 정연한 것 보다 똑같은 주제를 놓고도 제각기 다 다르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다. 학생세미나, 교사세미나 이런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학생과 교사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꼭 술자리라는 말은 아니고, 그리고 특활수업도 답답한 교실에서 벗어나 야외로 학생들이 꼭 필요한 정보 장애인들에 꼭 필요한 정보를 주었으면 좋겠다.

전문적인 지식보다 간접적으로 배우는 게 많다. 그리고 앞으로는 학생들이 한명 한명씩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아름답고 예쁜 야학을 꾸면 좋겠다. 나는 노들 야학을 사랑한다. 백년 배필을 만나게 해 준 노들야학.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준 곳. 앞으로도 재미있고 똑똑하고 웃기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많이 올 것이다. 아니 반드시 와야 되고 5년 후 10년 후 차별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기 바라며.

- 11평 공간에서, 2007년 8월 배 덕 민

# 저, 졸업합니다^^\*



한소리반 졸업생 남미숙

난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아직도 더 많이 배울게 많은데 졸업이라니.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길을 가는 사람이라도 잡고 묻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비록 나이 어린 사람이라도 글자하나라도 많이 알면 우선 그에게 배워야한다. 자신이 남과 같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여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 묻지 않는다면 이것은 종신토록 고루하고 무식한 경지이다 자신을 가두어 두는 것이 된다고 한다.

집안에서도 인터넷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난 노들야학을 만나 감사하게 생각한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가족같다. 다정하게 웃어주는 정윤아찌, 범민, 듬직한 명학아찌, 애교많은 정민언니, 내 일처럼 술선수범으로 뒤에서 도와주시는 선생님과 봉사자들까지. 많은 체험은 해보진 않았지만 모두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수업 받을 때 모르는 공식이 있으면 다시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수학생. 한 단어라도 알아야 한다면서 크게 읽어보라는 영어쌤. 모두들 열심히 공부하라는 과학쌤. 피곤해 즐고 있는 학생이 있어도 열심히 설명해주시는 국사쌤. 모두들 잊지 못할 것 같다. 난 늘 가까운데 살면서 늘 늦게 오고 자주 결석을 해서 늘 미안했는데.. 멀리서 오셔서 배고프지 말라며 늘 따뜻한 사랑으로 하나하나 간식 챙겨주시는 수연어머니. 그리고 노들 식구 분들 모두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고, 앞으로 노들 어려움이 술술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 2007년 상반기 학기를 마치며

한소리반 학생 김명학

「노들 여러분! 상반기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 늘 건강들 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인간 해방, 장애해방 그날까지 투쟁!”



‘노들바람의 “노들”은 노란들판의 준말입니다. 농부의 노동이 녹아난 들판에 넘실대는 결실들을 뜻하는 말로 노들인 모두 대지를 일구는 농부라 생각합니다. 시퍼런 “경쟁”의 도구로 차별과 억압의 들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연대”로 “인간 존엄성과 평등”이 넘쳐나는 노란들판을, 그 대안적 세계를 꿈꾸는 농부들 말입니다.

언제 읽어도 멋진 글귀라서 적어보았습니다.

시간은 아주 빨리 가는군요., 옛그제 같은 상반기 학기가 다 가니 말입니다. 상반기 학기에도 노들 야학은 야학의 일상과 더불어 각종 집회 등 숨가쁜 상반기 학기였습니다. 또한 야학 내 분위기, 출석을 등 고민과 갈등들이 많이 있었던 아니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한없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또한 노들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반성도 해 봅니다.

노들의 이런 문제들은 몇몇 사람들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들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힘든 일이 아니고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최소한 자기가 맡은 의무와 책임을 책임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책임감과 의무감이 부재한 탓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저 자신도 반성과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반성을 하면서 이번 상반기 학기를 거울삼아 하반기 학기에는 보다 성실한 자세로 야학생들을 해 보자구요. 노들 여러분! 상반기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 늘 건강들 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인간 해방, 장애해방 그날까지 투쟁!”

# 2007년 8월, 검정고시 증언대회

( \* 아래의 사진과 내용은 그다지, 관계.가.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증언 1. 수험생 최모씨

검시.. 문제가 어려웠다. 기량어은.



증언2. 수험생 최미씨

교시 때~! 소리와 함께 교실을 뛰쳐나오다.  
레~ "나 합격했잖아?!!!"



**|증언3. 수험생 배모씨**

수학 3등급 영어 52 사회148 과학 28 미안해 ㅋㅋ



**|증언4. 수험생 공모씨**

량이이되니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 긴장이 됐지만  
그만큼 시험에 부담감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증언5. 응원나온 허모씨**

놀러 나왔는데, 의외로 재미난다.



**|증언6.**

**마실나온 00씨**

나눔 보았다.

나무 아래의 그들을.

(점심 간식을 준비하느라  
녹초가 되어버린 요리교수들)



**|증언7. 촬영나온 문모씨**

촬영할 겸, 겸시응원도 할겸, 밥도 먹은 겸, 겸시겸사~♪

벌컥. 학부모대기실이 없어지면서, 주차장 옆에 마련된 컨테이너대기실은, 턱이 높아 전동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을뿐더러, 한 칸의 좁은 공간 안에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비좁게 앉아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척박한 환경(?) 임에도 불구하고, 노들의 만년 고시생 정윤, 신일, 정민, 진영, 승연, '행복은 성적에 반비례한다'는 모토로 검시에 초월한 덕민·우준도사, 그리고 뛰어난 실력의 소유자 대식, 미숙, 지영, 용화, 해경. 마지막으로 '미처 합격한줄 모르고' 검정고시 합격을 바라며 응시한 최0은여사까지.

긴긴 시간, 책상 앞에 앉아 시험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노들을 구해주어~

준비팀장 홍은전



## 1. 처음으로.

이 일에 가장 덕볼 사람이니까, A가. 저 일은 정~말 소중한 일이니까 B가. 누구 말처럼 참~ 일도 잘 떠맡기던 홍. 교사회원가, 상근자회원가. 이젠 니가 하지~? 하는 그 눈빛에.. 아하하, 사실 저도 호프 준비팀장 꼭 해보고 싶긴 했어요,,, 하고 넘죽, 엎드리긴 했으나, 이내 근심 한바가지 뒤집어씹습니다. 상반기 노들을 강타한 태풍급 재정난에, 오히려 금전개념 완전 상실하신 고장난 교장샘. 목표는 3천만원이대! 우헤헤~ 하시지만, 제 고민은 겸손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골뱅이무침엔 뭐가 들어가지? 소주 안 내놓으면 화내실라나? 10년을 술독에 빠져살고도 내 주량조차 파악 못하고, 안주라고는 오징어땅콩밖에 모르는 제게, 불특정 수백명의 술과 안주를 준비하라니요,,,



## 2. 나를 용 썼으나,

4년 전, 총무들에게 전해내려오던 노들 일일호프 결산자료 홀랑~ 찜찜먹은 죄로, 학창시절 가사선생님들의 혀를 내두르게 한 처참한 요리실력이지만, 불친절한 한나 씨를 들들 볶아대며 고군분투한 끝에 1주일에 걸쳐 '나를 과학적인' 안주 재료 예산안을 완성합니다. 물론. 장보는데 대동하신 한나여니의 화려한 길동시장 인맥과, 30년 노하우 장바구니식 계량법 앞에 곧바로 폐기되었습니다만. BTB호프측에 '남을 시 반납을 조건으로' 여유넘치게 주문했던 우리의 '훈제치킨, 깐풍새우, 모듬소세지' 등의 주재료들마저 호프 당일 8시,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만. 9시경엔 급기야 호프집에 남아있던 모든 생맥주를 싹쓸이하고야 말았습니다만. (뒷날 장사 어찌하셨을라나 몰러 ㅎ)

다행히도 하늘에서 떨어진 푸드뱅크 닭 가슴살(아무리봐도 돈까스)로 우려했던 티켓환불사태는 벌어지지 않았고, 중간중간 급~조달한 안주들로 어찌 큰 사고 안당하고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뭘 배려요. 나한테. 이만하면 장사 잘했지.

### 3. 그대들이 없었다면 어쩔 뻔 했소..

당최 교사만 열일곱인데,, 써빙할 사람은 어찌 그리 없었는지. 하늘에서 노들을 구하라~고 내려준 게 아닐까 싶은, 연세대 문과대 5반 학회 “잡초” 10여명의 동지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장추련(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호프 자료 몽땅~ 넘겨주고 이것저것 신경써준 소연, 전화 한통에 냉큼 달려와 준 호프의 달인 동엽. 너무 고마워요. 아, 또. 개교기념제부터 호프 끝날때까지 음향 지원하느라 술도 못마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근\*상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 4. 두등~ 티켓판매왕

\* 1등! 덕민. 은영은 신경도 안쓰는데, 1등 먹겠다고 고군분투, 아무래도 자비를 떨지 않으셨을까 싶지만, 어쨌든 힘겹게 37장의 선을 넘어,,, 1등.

\* 2등! 올해는 좀 힘들거 같애,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고 계시는 은영네 일가, 36장으로 아깝게 2등.

\* 그리고 30년만에 해후하신 고장샘 유치원동창님. 근육장애인협회 김판수님. 스판인2000 왕태윤, 강원래님. 그리고 약속한 100장엔 휘얼~씬 못 미쳤지만, 장애여성공감 동지들^^ 노들 바깥에서도 내 일처럼 직접 발품 팔아 뒀어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 5. 물론,

열악한 주머니 사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티켓 사주신, 바쁜 일정 속에서도 노들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애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신없이 힘든 하루였지만,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 힘으로, 오늘도 노들야학 열심히 살겠습니다. 투쟁!

ps. 그 날 오지 않은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올려, [노들인의 밤]까지 특별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 영상후원해주신, 다규인 원해수동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곰이와 오편돌이 아저씨’를 읽고

풀무질 은종복



권정생. 이름만 불러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살아계실 때 남북이 갈라진 아픔을 온몸으로 겪고

어른들 싸움으로 아파하고 쓰러지는 아이들을 사랑한 사람.

그가 1980년 초에 쓴 글 ‘곰이와 오편돌이 아저씨’.

나는 이 글을 읽으며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을 느꼈다. 북녘에 살던 아홉 살 된 곰이, 북녘 군인 오편돌이 아저씨가 추운 칼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는 1951년 1월 강원도에 있는 치악산에서 하늘에서 퍼붓는 포탄으로 쓰러져 죽었다. 그들은 죽어 한이 맺혀 30년 뒤에 다시 살아났다. 살아서 북녘에 살고 있는 할머니와 고향집을 그리며 잠 못 이룬다. 그들은 왜 죽었고, 그들은 누구를 미워하며 총부리를 겨눴나. 한국 전쟁으로 쓰러져 간 사람들은 지금 어느 하늘 아래에서 떠돌며 한을 달래나.

지금 2007년 여름, 남북은 다시 서로 죽이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때 한국 전쟁으로 죽어 간 영혼들은 피맺힌 목소리로 말한다. ‘왜 남과 북이 서로 총을 겨누며 싸워야 했느냐고. 왜 미국과 소련을 등에 업고 서로 죽이는 꼭두각시 피 싸움을 했느냐고. 다시 그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남과 북 백성들은 평화 씨앗을 스스로 마음 밭에 뿌리고 있냐고.’

나는 이 책을 읽으며 이런 물음을 자꾸 던진다. 사람들은 온갖 기계를 만들며 행복한 삶을 만들려 하는데 왜 한반도는 아직도 서로 총부리를 겨누며 으르렁거릴까.

권정생은 돌아가시면서 피를 토하듯 말을 했다. 제발 더 이상 사람뿐 아니라 목숨



있는 것들을 다 죽이는 전쟁을 하지 말라고, 더 이상 남과 북에 사는 백성들이 서로 미워하지 말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길을 걷자고, 미국, 중국, 소련, 일본에 사는 돈에 눈멀고 무기를 마구 만들어 싸움을 하려는 사람들 말을 따르지 말자고, 내 목숨 살자고 가난한 나라 아이들을 죽이는 싸움터에 우리 나라 군대를 보내지 말자고 울부짖는다.

이 책에 나오는 옛이야기를 보면 호랑이는 엄마를 잡아먹고 오누이마저 잡아먹으려 한다. 오누이는 힘을 모아 호랑이를 물리치지 않고 서로가 옳다고 다투다가 둘 다 죽는다. 이것이 지금 남과 북이 처한 현실이다.

1948년 조선은 해방이 됐지만 순전하게 조선 사람 힘으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 군홧발 아래 이루어졌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려는 꿈은 조각조각 부서지고 돈에 눈멀고 이념에 눈먼 사람들 손에 한반도는 휘둘렸다.

남북이 갈라진 아픔을 60년 넘게 겪고 있다. 권정생은 곰같이 독심 있고 맑은 '곰이'와 조국 허리가 잘린 반쪽이인 '오편돌이'를 그리며 남북이 다시는 총부리를 겨누는 싸움을 하지 말자고, 그런 싸움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마음 밭에 평화 씨앗을 뿌리자고 울부짖는다.

누가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일까. 미국이 만든 무기를 사들여 군사 힘을 키우려는 남녘 사람들이 들을까, 핵무기를 만들어 더 큰 싸움을 일으키려는 북녘 사람들이 들을까?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지만 고향 집 넷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하늘 뜻을 따라 먹을거리를 만드는 농사꾼들이 들어야 한다. 내 목숨이 귀하면 다른 이 목숨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 남과 북이 싸우는 일을 막아야 한다. 남과 북이 평화롭게 하나 되는 것을 막는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 싸워야 한다. 아니 한반도 남과 북에 사는 돈에 눈먼 사람들을 물리치고 두 뼉뼉 걸어가야 한다. 그날이 오면 권정생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고, 곰이와 오편돌이 아저씨 영혼이 마음 편하게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 2007년 7월 26일 남북이 하나 되기를 바라며 밤을 꼬박 새운 날 풀무질 일꾼 은중복 씬.



## 후원해 주시는 분들

### 〈자동이체후원〉

고명선, 김기형, 김동호, 김미선, 김용철, 류동훈, 류인규, 민여경, 박경순, 박미영, 박성희, 박종철, 배상근, 서금석, 서정희, 손우정, 신동길, 안성희, 오선실, 유별라, 윤정미, 유정옥, 윤정임, 윤종배, 은종복, 이광인, 이민규, 이지은, 이하나, 이현숙, 이호중, 장세진, 정진용, 지은경, 진은주, 최상희, 최혜림, 힘찬 박수, 홍영선, 황미향

### 〈cms후원〉

강경완, 강광숙, 강미향, 강병완, 강정자, 강주성, 강현욱, 강희관, 고봉석, 고아라, 고양숙, 고제현, 고택호, 곽노근, 곽성자, 구현아, 권경숙, 권기원, 권병주, 권순성, 권재수, 권태국, 김계옥, 김근식, 김기동, 김대성, 김덕훈, 김도현, 김도훈, 김동진, 김동환, 김두경, 김명학, 김문주, 김문호, 김미애, 김범식, 김병기, 김보연, 김비호, 김상윤, 김선옥, 김순주, 김신자, 김애경, 김연선, 김연희, 김영희, 김용욱, 김우경, 김유미, 김유진, 김은미, 김은천, 김익현, 김장원, 김재경, 김정구, 김정연, 김정하, 김종윤, 김지수, 김지혜, 김지희, 김창보, 김태승, 김태인, 김하늬, 김현정, 김혜미, 김혜옥, 김홍희, 김효진, 나선영, 나해니, 남정식, 노혜련, 류명욱, 류승화, 류정숙, 마미주, 문명동, 문성훈, 문창배, 민점식, 민혜숙, 박경석, 박경아, 박경혜, 박경화, 박누리, 박동주, 박미희, 박민영, 박보라, 박상일, 박상호, 박성일, 박성희, 박시백, 박영환, 박은정, 박인화, 박장근, 박장근, 박재국, 박종필, 박진우, 박 철, 박혜민, 반영신, 배덕민, 배윤주, 백미화, 백연희, 백재선, 변종석, 서명아, 서미선, 서주형, 서중석, 석순용, 손동각, 손영익, 신복순, 신승애, 신한나, 신현훈, 심귀향, 심미경, 심한권, 안문필, 안민희, 안소진, 안희옥, 양현준, 어수진, 엄기양, 엄재균, 여운호, 여준민, 오정자, 옥 샘, 유명숙, 윤길중, 윤두선, 윤명섭, 윤석규, 윤선기, 윤정은, 윤 희, 이경희, 이광석, 이남희, 이도건, 이동진, 이미랑, 이미영, 이미자, 이석원, 이수용, 이순웅, 이승범, 이승주, 이승현, 이알찬, 이은숙, 이은정, 이재령, 이재승, 이정민, 이정우, 이제현, 이종실, 이주옥, 이지은, 이지혜, 이진희, 이철우, 이태근, 이해창, 이현규, 이현숙, 이현진, 이형권, 이형록, 이흥규, 이흥호, 이희국, 임춘학, 임혜숙, 장기영, 장선정, 장성아, 장영숙, 장효정, 전경옥, 전권세, 전민숙, 정상욱, 정연수, 정영란, 정영석, 정영화, 정용균, 정용안, 정우준, 정은영, 정종권, 정주연, 정지영, 정진수, 정현강, 정희덕, 조미정, 조성진, 조승근, 조연희, 조은경, 조자영, 조현숙, 좌동엽, 좌미경, 좌혜경, 주기종, 지세진, 지암메디테크, 천중민, 천진수, 최경일, 최동호, 최미란, 최보미, 최선희, 최승우, 최우영, 최유정, 최윤선, 최 익, 최정민, 최정숙, 최정은, 최진철, 추경미, 하성우, 한남희, 한명숙, 한양재, 한지훈, 한혜선, 한혜원, 허 건, 허정일, 허진태, 허 창, 홍갑출, 홍승대, 홍은전, 홍주영, 홍진표, 홍철기, 황성윤, 황해진

### 〈국민은행〉 중부지점

\* “고려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들장애인야학 교사모집

장애 인구의 50%가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학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연히 국민으로 누렸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권리마저 누리지 못해 척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노들장애인야학은 이러한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http://www.nodl.or.kr>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16-3 정립회관 교육관 3층

<교사지원 문의>... 02-766-9101(사무실) 02-446-9101(야학)

010-8310-9474(교육부 부장)

nodl@paran.com



노들장애인야간학교와 함께 희망을 만들어갈  
**후원인을 모집합니다!**

## | CMS 후원 가입 안내 |

CMS 후원은 후원의 의지가 있는 분들이 은행에 가서 직접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새로운 후원방식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거나, 출금에 필요한 정보(출금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저희 야학(담당자)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766-9101 / 010-9299-1757(안소진))

## | 은행 자동이체 신청 안내 |

통장, 통장 도장,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거래하시는 은행의 자동이체용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 계좌 번호 |

국민은행 835-21-0312-815

외환은행 170-19-30457-4

\* 지로 번호 : 7648533

기업은행 133-025369-02-019

우리은행 470-07-035448

전구좌 예금주 : 박경석

농협 029-12-200545

조흥은행 904-04-255208

신한은행 353-02-276437

하나은행 757-810128-43007